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학사 일정

5월

- 4(화)~7(금) 2021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 5(수) 개교기념일·어린이날(공휴일)
- 12(수)~6.11(금) 2021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 19(수) 부처님오신날(공휴일)
- 22(토)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

6월

- 6(일) 현충일(공휴일)
- 11(금) 2021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 11(금)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8(화)~21(월)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 22(화) 여름방학 시작
- 30(수)~7.2(금) 2021학년도 1학기 원제본 논문 접수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대규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1년 5월 5일(수)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76호(월간)

■ 초점

배움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국립특수교육원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이한우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개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특수교육 연구 및 실태조사, 연수 및 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진로·직업교육, 인권 보호, 고등·평생교육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립특수교육원의 운영 비전은 무엇인가요?

우리 원의 운영 비전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현장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 정부의 특수교육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책무와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 업무로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지원합니다. 나아가 장애 이해 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평등하고 차별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사회 전반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 국립특수교육원 역점 사업과 추진 방향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장애학생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두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학생 원격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은 장애유형별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사용하기에 제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화면 확대, 대체 텍스트,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실시간 자막,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화면 조작, 지적장애학생 등을 위한 UI 단순화 등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든 장애학생이 원격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입니다. 우리 원은 2017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와 개발,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성인기 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하고자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사회적 삶을 배움으로써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 매년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그 수가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이상을 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 방향을 제안해 주십시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과 국민의 노력으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그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장애학생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평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 준비도, 흥미, 학습 형태에 따라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교육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중심' 가치를 강조합니다. 뿌리와 뿌리가 서로를 붙들어 아무리 센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도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확실한 미래에 마주할 어떠한 위기에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은 이러한 미래교육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장애학생 일상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

로 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미네르바 스쿨 설립자인 Ben Nelson은 오프라인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긴다고 원격수업이 실현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깊은 바닷속 쓰나미처럼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모든 것을 쓸어가는 변화가 닥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우리 원은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의 가장 큰 요구는 수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사이트를 구축하여 웹 접근성을 보장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올해는 학교급별, 교육과정별로 콘텐츠를 더욱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사도교육청 소속 교사연구회와 각급 학교 등에서 보유·제작한 특수교육 우수자료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장애유형별 학습활동지, 교육영상, 이러닝 콘텐츠 등 총 6,500여 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실감형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장애학생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매년 다양한 영역의 특수교육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국내외 세미나에서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각각 5월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이 기회를 빌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을 겪으면서 어떠한 미래 기술도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는 학생의 특성에 더 민감하고 정교하게 반응하는 교수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학생들의 눈높이에 가까이 키를 맞출 수 있는 교육자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국립특수교육원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PRIDE
CLUB

지금, 당신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학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갈 고려대학교가 원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국제전문가 양성



맞춤형 장학프로그램을
통한 우수인재
후원



초임류 석학들의
창의연구
(Creative Research) 지원



미래를 개척할 인프라
(교육연구시설, 첨단실험
시설 등) 구축

은행명, 계좌번호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에 제공되며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부총
로 후에도 보관됩니다. 금융결제원 및 은행은 고객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이체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위 사항에 동의하며, 열과 같이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정기기부신청서

기부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법적 생년월일 기재						
구분	☐ 교우 입학연도	년	☐ 교우 학생성명			
	대학(원)	과	대학(원)	과(과정)		
	☐ 교직원	☐ 교대를 사랑하는 사람				
기부금액	☐ 1구좌	☐ 3구좌	☐ 5구좌			
	☐ 10구좌	☐ 30구좌	☐ 기타()구좌			
※1구좌 매월 1만원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기부 권유자	성명	연락처				

작성하신 신청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 1666-3403(문자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2021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시행



지난 4월 9일(금)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이 시행되었다. 이번 종합시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응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별로 고사장(우당교양관, 운초우선교육관)을 분산하여 시행하였다.

응시자들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된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열 확인과 손소독을 거쳐 고사장에 입장하였다. 모든 응시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해야 했으며, 불필요한 대화 및 불요 불급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안내받았다. 본교는 응시자 간 책걸상을 앞뒤한 칸씩 띄어 배치하고 응시자의 양옆을 두 좌석씩 비워두는 등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교시에는 교직, 2교시에는 전공, 3교시에는 외국어 시험이 치러졌고, 합격자 명단은 지난 4월 30일(금)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한편,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교직, 전공, 외국어 과목)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격 처리되며 2014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공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있다.

종합시험은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시행되며, 2학기 이상 이수한 자(12학점 이상, 평균 B이상)에게 교직 및 전공 과목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어 과목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재교육과정생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 과목 중 3과목 평균이 A 이상이면 교직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양성과정생(2011학년부터)은 교직시험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교직 필수(이론)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어 공인인증시험 면제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학기 중 개설되는 공통영어를 수강하여 통과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5학기에는 공통영어를 수강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s://edugrad.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1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 현황

2021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최종 합격한 본교 졸업생 현황이 취합되었다. 2021학년도 중등 임용시험은 작년 11월 21일(토)에 실시된 1차 시험과 올해 1월 20일(수), 26일(화)~27일(수)에 치러진 2차 시험으로 진행되었다. 합격자 명단은 각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본교 합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57명(학부44, 대학원13) △세종 1명(학부1) △강원 4명(학부2, 대학원2) △경기 94명(학부66, 대학원28) △대전 3명(학부3) △충북 2명(학부2) △충남 4명(학부2, 대학원2) △광주 1명(학부1) △전남 6명(학부6) △전

북 4명(학부4) △경남 1명(학부1) △경북 1명(학부1) △부산 1명(학부1) △제주 2명(학부2) △인천 6명(학부5, 대학원1)

2021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범대 및 교직과 정 졸업생은 141명, 교육대학원 졸업생은 46명으로 총 187명이 임용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공립학교에 57명, 경기 소재 공립학교에 94명의 졸업생이 임용되었다. 한편, 이번에 임용된 합격생들은 지난 3월부터 각 시도 공립학교에서 교직 업무를 시작하였다.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1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

5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5월 21일(금) 오후 11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제3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이 이루어진다.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3항 관련)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에 따라 2013년 8월 졸업자부터는 필히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청은 교내 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및 검사일자는 아래와 같다.

신청인원에 따라 아래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거리두기를 위하여 각 차수별 시간당 응시 인원은 20명 내외로 제한한다. 검사시간은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고, 대기장소 및 응시시간에 대한 안내는 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공휴일 제외)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차수	신청기간	검사일자	시간(예정)
3	2021.05.17.(월) 10시 ~ 2021.05.21.(금) 23시	2021.06.04.(금)	17시~20시
4	2021.06.14.(월) 10시 ~ 2021.06.18.(금) 23시	2021.07.02.(금)	14시~17시
5	2021.07.05.(월) 10시 ~ 2021.07.09.(금) 23시	2021.07.23.(금)	14시~17시

〈표〉신청기간 및 검사일자

교원자격 취득요건 및 결격사유 추가안내

교원자격검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요건과 결격사유가 변경되었다. 변경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에 의거한다. 취득요건으로는 성인지 교육 이수가 추가되었으며, 결격사유로는 향정신성 약물 중독 여부, 성범죄 경력이 추가되었다.

취득요건인 성인지 교육 이수 횟수는 교원자격 취득희망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진다. 사범대학생은 2021학년부터 1년에 1회씩 총 4회를 이수하여야 한다. 2021학번 이전의 경우, 2021년 8월 졸업생 또는 2022년 2월 졸업생은 이수 의무가 없다. 2022년 2월 25일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은 2회를 이수한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자와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은 1년에 1회씩 2회를 이수해야 하며 모든 학년에 해당된다. 단, 2021년 8월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자의 경우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 성인지 교육과 관련한 세부 계획 및 이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도 추가되었다. 무시험검정 시점인 졸업 직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졸업 직전 소정기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교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된다. 진단서 발급 방법 등 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된다.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교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서를 미제출할 경우, 졸업예정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이력회보서를 발급받아 교직팀에 제출한다. 이는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된다. 동의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2009학번 이전 및 재입학한 학생의 경우 필수적으로 교직팀에 방문하여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원 자격취득을 희망한다면 본인의 자격 중별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이채연 강의실 현판식



지난 4월 13일(화) 오후 4시 운초우선교육관 407호에 마련된 ‘이채연 강의실’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채연 회장을 비롯해 정태구 사범대학장과 사범대학의 여러 교수진이 자리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채연 회장은 “이렇게 강의실을

마련해주시고 현판식까지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다.”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비 속에서도 처음 1억 원을 약정했을 때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경영 AMP 16기이자 명인에듀 회장인 이채연 교수는 2017학년도부

터 사범대학에 매년 2,000만 원을 기부해왔으며, 5년째 되는 올해 약정액인 1억 원을 모두 완납하였다. 이채연 회장은 학원 사업을 하기 전 학교 교사와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학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형태로 수익을 환원하겠다는 결심 하에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같은 날 교육경영 AMP 교우 회장으로도 취임한 이채연 회장은 “상호 간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회장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학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원우들을 위한 시대에 맞는 재교육 과정을 마련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앞으로의 목표를 전했다.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제21기 교육경영 AMP 합숙 세미나



지난 3월 30일(화), 31일(수) 양일간 강원도 속초 롯데호텔에서 제21기 교육경영 AMP 합숙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합숙 세미나는 제21기 교육경영 AMP 원우 총 40명 중 33명과 정태구 교육대학원장, 박종호 부원장, 양채진 담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경계하여 축소된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예년과 달리 단체 일정을 생략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참석자 전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 행사 당일에는 발열 확인 및 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였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태구 교육대학원장의 축사와 김준에 한국서비스교육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은 ‘리더의 격을 높이는 감성소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21기 교육경영 AMP 원우들은 폭넓은 전문 지식을 쌓는 한편, 돈독한 원우애를 나누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다

짐하며 합숙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교육신문사에서는 교육대학원·사범대 재학생 및 교우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 원고 모집 지면은 ‘교육과 이슈’, ‘교육현장노트’입니다. 글을 보내주신 학우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분 량 : A4용지 1매
· 보 낼 곳 : edunews@korea.ac.kr
· 문의사항 : 교육신문사
02-3290-1690

교육과 이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긴급보육 과제



최예린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연구이사

전례 없는 감염병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비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언택트’ 교육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영유아는 비대면 수업이 어렵고 항시 성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유치원은 긴급돌봄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고에서는 작년에 이뤄진 필자의 ‘코로나 19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 관한 연구’ 그리고 올해 구수연과 공저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보육의 실태와 과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속 어린이집의 풍경을 그리고자 한다. 더불어 긴급보육 기간 중 보육교사가 경험한 정서와 달라진 어린이집의 일상을 제시하고 긴급보육 과제를 제안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은 불안과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남을 자제.”하였으며 “진짜 모든 선생님이 나가지도 못하고 무섭다.”라고 공포심을 전하였다.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되어 어린이집이 휴원 및 폐쇄되며 유아를 감염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자리했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들의 불신과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속상하다고 토로하였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확진자의 직장과 동선 공개가 타당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으로 인해 받는 비난에 대해서는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달라진 어린이집의 일상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와 영유아 모두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마스크를 벗기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며 교사는 아이가 답답해하며 귀

가 아프다 하어도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풍경이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아울러 교사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영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사와 영유아 간 접촉을 줄이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특히 영아반의 경우 교사의 손길이 매우 필요하지만, 스킨십을 자제하여야 했고 가까이 다가갈 때도 조심스러웠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의심자와 외부인을 경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감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을 제외한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현장학습을 자제시키는 등 관련 대응요령을 배포하였다.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가항력의 현실에서 교사들의 삶은 소독과 방역이라는 달라진 일상을 맞이했다. 교사들은 영유아의 발열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하원 후에는 교실에 있는 교재교구와 교구장 그리고 물품을 소독하는 등 업무 증가로 인한 피로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한 시간은 일 년이 넘었지만, 현재도 진행형이며 이제 위드(With) 코로나 시대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다시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육 현장에 던진 물음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긴급보육과제로서 교사의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감염병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린이집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사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

다. 긴급보육은 말 그대로 긴급하고 급한, 즉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비일상적 보육이다. 하지만 맞벌이하는 부모뿐 아니라 돌봄에 지친 부모들도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 어린이집은 정원 200명 중에서 185명의 영유아가 등원하였다고 제보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유연 근무제가 이뤄진 다른 직종과 달리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이 이뤄져야 했기에 교사들은 월급 없는 삶 속에서 전염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까지 경험하여야 했다. 보육교사는 대면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건강과 안전은 교사 개인과 가정의 안전이기도 하지만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와 그 가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감염병 예방지침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교육기관이라는 큰 틀로 보고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이며, 부처 간 연계가 어려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긴급돌봄과 긴급보육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방역지침이 다를 뿐 아니라 지원 방식도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다. 보육교사들은 유치원과 비교할 때 행정적인 전달이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 삶을 붕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되는 감염병 예방지침의 내용을 포괄하되 유아교육 기관에 적합한 구체적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

긴급보육 과제로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닌다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어떤 기관을 김치를 담가주거나 반찬을 만들어 보내는 등 원비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부모가 원비를 결제하지 않거나 미룰 때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할 때 어린이집 운영은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긴급예산편성, 보육료 결제 시스템 전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 교사를 위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언론은 어린이집 교사의 확진자 접촉, 확진, 원내 전염 등 어린이집 교사의 감염에 관해 민감하게 다루었다. 한 교사는 “교사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낙인.”과 “누군가 걸릴 수는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라는 시선에 힘들다며 “이곳저곳 돌아다녔다는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오해로 인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라고 제보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으로 인해 영유아가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더불어 기관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불안을 높은 강도로 경험했다. 따라서 각 시에 있는 유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제안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경우 오랜 시간 영유아를 밀접 접촉하면서 돌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백신 보급 시 우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백신 휴가 제도 또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관계부처는 교사들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력지원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업무협약 체결

지난 4월 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학교시설사업의 기존 설계 방식과는 다르게 사전 기획 과정을 둔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건축 전문가와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공간에 이를 구현한다. 따라서 학교 공간과 시설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은 건축 설계 및 공간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의 학교 현장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만·관·학이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미래학교가 배움과 휴식이 있는 사용자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가 지역사회의 대표적 공공시설로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주요 협력 사항 외에도 협약 실행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명회와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학건축사협회 소속 건축가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역량 있는 건축가들이 미래학교 설계와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설계 공모전 등 관련 행사 개최에 협력한다. 건축 설계 및 실내 공간 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학교 사전 설계 공모전 개최에 협력하여, 학교 공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래학교 관련 학술·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현장에 전문가 인력풀을 지원한다. 미래학교 관련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미래학교 공간과 시설에 대한 학계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 대상 학교와 사도교육청에 관련 전문가 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부, 사도교육청,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교육부는 4월 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로 2021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5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특히, 최근에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폭력에 주목하여, 그와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심의를 통해서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학생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며, 교원 역량을 제고하고 파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사안에 대한 교원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만든다.

나아가,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Wee) 센터별로 사례관리자를 지정한다. 그리고 사이버폭력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처벌 내용, 인터넷 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한다. 또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의 안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사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그리고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난 4월 20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에 나섰다. 2025년부터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도 강조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내고,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미래 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끌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차별점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개정이라는 점이다.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하여 소통을 기반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하여 오는 7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지역 분권화 및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계 운영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교육과 학문

공부하는 학생선수 담론 너머, 우리가 논의해야 할 세 가지



이혜령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시간강사

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학교체육과 관련된 담론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이라는 표어가 대표적이다. 이 표어가 발화된 순간부터 학생선수 역시 공부해야 정상이라는 지향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학생선수’는 어떤 과정에서 담론화되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학생선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왔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디어 자료에서 찾아낸 학생선수 개념의 계보를 요약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탐색했다. 나아가 이 담론 너머 교육계가 논의해야 할 지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생선수는 2011년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는 1949년 7월 9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학생선수는 학생육상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이라는 기사에서 처음 발견될 만큼, 꽤 오래전부터 사용된 개념이다. 이후, 학교 운동부 및 학생선수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생선수 개념에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서 80년대의 학생선수는 운동선수나 국가대표 학생선수 등으로 불리며 학생이 아닌 선수로 여겨졌다. 이 시기 언론들은 대회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가 걱정된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인 조카는 오늘도 운동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체육관으로 향했다. (중략) 5학년 2학기부터는 책과의 인연을 끊었고, 6학년에 올라와서는 3개월이 지나도록 40여 시간 수업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1980년 6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을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 부처가 경제발전과 국력 향상에 매진하였으며 교육계 역시 발전교육론을 담론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선수들은 국가발전에 일조할 체육계 인력인 ‘운동선수’로 육성되었다.

1990년대는 18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의 시기이다. 학생선수들은 이전 시대에 제도화된 체육 특기자제도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짜여진 운동부의 시간표에 맞춰 경기력 향상에 몰두하였다. 이 시기에는 체육 특기자 입시 비리 문제가 줄지어 보고되었으며, 학생선수들이 대학 입시특혜자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특기자제도의 개선이 도마 위에 올랐고, 소년체전의 존폐 역시 논의되었다. 교육계는 소년체전이 지나친 승부욕을 불러일으켜 각종 폭력 문제와 수업결손을 발생시키기에 교육적이지 않은 제도로 평가했다. 그러나 체육계는 체육유망주 발굴의 기회로써 대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계와 체육계는 이 대회의 주관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학생선수가 학생인가, 선수인가 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이 시기 행정부처 간 이견에서 발견된 것이다. 동시에 운동 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 때문에 학생선수는 공부에서 더욱이 멀어져 버렸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학생선수 담론을 둘러싼 판도가 바뀌게 된다. 올림픽에서의 선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개인의 발전이라 믿었던 과거와는 달리 선수 개인의 선택과 권리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한 수영 국가대표 선수의 입촌 거부,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의 화재 사고, 운동부 내 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

의 원인을 승리 지상주의와 체육 특기자제도로 연결했다. ‘폭력 문제-대회 성적-입시’의 서사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는 체육 단체에 맞섰고 미디어 역시 학생선수 인권침해 상황을 세상에 알렸다. 이 시기 학생선수의 문제는 곧 사회문제가 되었다. 곧이어 ‘공부하는 학생선수’는 정부와 국회의 각종 논의에서 언급되며 체육 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나아가 2010년에는 공론화된 학생선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관련 기관이 들어섰다. 축구를 시작으로 농구, 야구로 주말 리그제가 확산하였고, 최저학력제도를 도입시켜 학생선수들이 최소한의 공부를 하게끔 하였다. 모든 제도의 도입 초기가 그러하듯, 익숙했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라는 주문에 현장 지도자는 불만을 표했으며 입시 문제와 결부된 제도 변화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제도들은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부를 관리·감독하는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現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가 2010년에, 학교체육진흥회가 2018년에 차례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도 학생선수의 출결 문제와 학점 및 입시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으며 폭력 및 성폭력에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실태가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체육특기생의 학사관리 및 입시를 엄격히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스포츠혁신위가 발족하였으며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되었다. 다시 말해 2010년대에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및 관련 단체 설립이 뒷받침되었다. 이로써 공부하는 학생선수 담론이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학생선수의 개념에 특정

의미가 담겨 ‘공부하는 학생선수 담론’이 되어온 지난 50여 년을 추적한 결과 ‘운동선수의 의미가 강조된 학생선수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로, 그리고 인권보장과 정책적 보호 대상으로’ 관련 담론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담론의 형성과정에는 사회문화, 거대 담론, 인식변화는 물론 여러 사건-사고가 개입되었다. 동시에 담론의 형성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마련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 과정에 정작 학생선수는 빠져 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표어를 앞세운 지 20년이 되어가는 최근 까지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원인을 스포츠계의 카르텔이나 시스템 부재로 짚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학생선수를 중심에 두고 해야 할 세 가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표어를 제시하며 공부를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이들이 해야 할 공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특히 체육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학생선수의 삶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이 해온 공부와 해야 할 공부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학교 운동부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에게 전문 체육을 교육하는 장이라면, 체육교육의 연장선에서 운동 기술의 깊이나 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계보를 탐색한 결과 학생선수가 학교에서 육성되고 있어 관련 담론 역시 학교 안으로 한정된 형국임을 발견함에 따라, 학교 밖 운동부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공공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학교 밖 교육 장소를 모색해 본다면 산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방향의 담론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담론이 존재한다. 체육계에는 스포츠 선진국, 건강, 혁신, 복지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선진국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스포츠계의 목표를 구성하고 논의하면, 이는 동시에 생각의 실천과 행동 규제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즉, 담론은 조직화된 말로서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과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며, 특정한 사회 맥락에서 가치와 의미를 반영한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상황을 정의하고 판



교육신문 문화평

명의(名醫), 혹은 말단 노동자의 직업 윤리

지 직업 윤리에 충실하고자 할 뿐인 어떤 사람들에게 성자가 되길 강요하며, 나아가 그 목숨을 값어치고 있음을 주장한다.

‘외상(外傷)’은 ‘몸에 가해진 물리적 충격에 의해 손상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중증외상’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외상이다. 이국종의 진료 기록에 담긴 환자들의 신체는 어딘가에 부딪히고 깔리거나, 혹은 떨어지고 무엇인가에 관통당해 말 그대로 으스러지고 터져 있다. 그렇기에 중증외상 환자에게는 특히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국종이 처음부터 외상외과를 목표로 수련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간 조직 재생’ 연구로 학위와 연구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IMF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친 시절, 간담체 외과에는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이에 지도교수인 외과 과장의 권유로 선택한 분야가 외상외과였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공이었다.

외상외과는 “외과의 가장 초기 모습으로서 외과 전체의 뿌리”이지만 국내에서 세부전공으로서의 생소한 분과였다. 그런 만큼 처음 이국종이 마주한 중증외상외과의 현장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환자는 빠르게 이송되지 못했고, 간신히 병원에 도착해도 수술할 의사와 장비, 수술방과 중환자실이 부족했다. 전원된 환자들

은 여러 응급실을 헤매다 “길바닥에서” 죽어갔다. 저자는 특별한 소명감으로 그 전공을 택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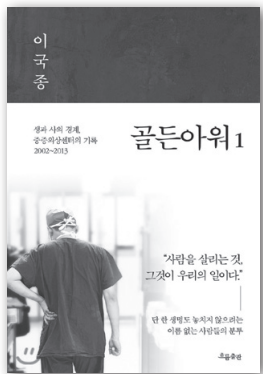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선진 체계를 배워 돌아온 그가 현장에서 느낀 건 중증외상외과의 원칙과 방법을 도입할 수 없게 하는 더 큰 시스템의 벽이었다. 우선 그는 병원 내부에서 수많은 압박에 시달린다. 중증외상환자 치료에는 통상적인 환자에 비해 인력과 장비, 약품 등이 몇 배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면 온전히 그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없었고,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 이국종과 중증외상외과는 “적자의 원흉”일 뿐이었다.

병원 밖에서도 여러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에 기반한 중증외상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번번이 무위로 돌아간다. 지자체의 사업은 지속적이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직무 외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회피했다. 석해균 선장 수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중증외상센터’가 아닌 ‘병원’에서 지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각 병원들이 내놓은 구상들은 중증외상외과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뜻을 굽히는 대신 사방에

허리를 굽히던” 저자는 헬리콥터 소음에 대한 민원서를 응시하며, ‘반복되는 고통’을 넘어선 ‘지겨움’을 토로한다.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을 받지 못한 저자와 그 동료들은 스스로의 표현처럼 ‘갈려들 어간다.’ 이국종은 한쪽 시력을 잃고, 부러졌다 멋대로 붙은 오른쪽 어깨 뼈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간다. 당시 기준으로 평균의 2배인 한 달 400여 시간의 근무를 소화하는 전담간호사들은 인력이 부족해 임신 6개월의 몸으로도 헬리콥터에 올라야 했다. 자신이 그저 월급 받는 “말단 노동자”임을 여러 번 강조하는 저자는 자괴감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에 치저 자신을 ‘공식적으로’ 잘라주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술회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자기 손으로 치료를 그만두거나 허투루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희생을 추동한 건 저자 본인이 밝혔듯 각별한 사명감이 아니라 자기 업(業)의 최소한을 지키려는 직업 윤리였다. 이 책은 우리의 직업 윤리는 무엇인지 한 번쯤 되물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업의 최소한을 지키다 지쳐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는 점에서 일독을 권할 만하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골든아워: 생과 사의 경계, 중증외상센터의 기록 2002~2018(2018)
이국종 지음, 흐름출판

‘골든아워(2018)’의 저자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8발의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 주목 받은 중증외상외과 전문의이다. 당시 극적인 치료 과정, 그리고 환자에 대한 그의 헌신이 알려지며 이국종은 ‘명의’나 ‘성자’의 이미지로 소비되었다. 그러나 800페이지에 달하는 현장 기록인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중증외상 의료 체계의 열악한 현실이 단

교육과 스승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오직 한 사람', 권미숙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이리남초등학교 권미숙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명감에 힘들더라도, 내 시간이 쪼개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선생님', '아이들이 있어 내가 있는 선생님'으로 남고 싶은 권미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권미숙

이리남초등학교 교장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이리남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권미숙입니다. 1981년 처음 부임한 이후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파란만장한 학교생활을 보낸 듯합니다. 강제 전출을 당하기도 하고, 사표를 내 보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방황이었지만 가르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1회 전라북도 교원 공개임용시험을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학기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마냥 편치는 않지만요. 바깥 세상이 두렵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 '나다운 삶'을 사는 방법을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이리남초등학교의 학생들은 특히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듯 보입니다.

'과거의 방법으로 오늘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훔치는 일이다.' 교육학자 존 듀이의 말입니다. 아이들의 학습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 배웁니다. 그렇게 배운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꽃피기 마련입니다. 그 꽃의 이름이 역량입니다.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할 수 있는 힘'이죠. 역량은 이미 미래시제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교육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축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리남초등학교의 학습장은 학교 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벗어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7년 가을, 아이들이 교장실로 찾아와 버스킹을 하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방법을 모색해서 2018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했죠. 교내 학습 발표회를 거리공연으로 바꾼 것입니다. 거기에 교내에서 운영하던 '아나바다 장터'를 접목해 플리마켓까지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자치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아이들은 논배미학교에서 생산된 '생명이 꼬물꼬물 이리남 논배미학교 쌀'과 각종 수공예품을 직접 판매하며 소득과 소비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학생자치단체 '다모임'에서 관리하죠. 분기별로는 유니세프에 기부도 하며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논배미학교'는 무엇인가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생명이 꼬물꼬물 이리남 논배미학교'는 익산시 왕궁면 농민회 농민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연중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입니다. 모판을 만들고 모를 심고 추수를 하는 영농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협동심을 직접 몸으로 배우도록 합니다. 추수를 마치면 마을회관에서 팜스테이를 합니다. 민속놀이도 하고 전통음식을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집니다. 학생들의 풍물 공연은 어르신들의 여흥을 돋우기도 하고요.

'논배미풍물단'은 독도에서도 공연했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경제침탈에 우리 아이들도 뜻을 표명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기획된 현장체험학습이 '2019 이리남초등학교 논배미풍물단 독도 공연'입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9시간이나 배를 타야 했던 고통 속에서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독도 입도를 알리는 선장의 안내방송에 일제히 일어나 공연 복장이며 약기를 챙기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외친들 그것이 가슴에 와 닿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떳떳한 한국인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1절 100주년에도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셨죠.

3·1절은 소중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3월 2일에 학기가 시작되는 관계로 소홀히 넘기고 마는 것이 실상입니다. 100주년만큼은 그렇게 지나쳐



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 오전 10시, 익산역 광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해 12월에는 '3·1절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와 함께 떠나는 상해임시정부 탐방' 체험학습을 기획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준 가장 뜨거운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유적지 답사는 아이들이 항일 독립투쟁을 현장에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나는 토요일학교>와 <어르신 한글교실>로 출발한 <왕궁어르신대학>의 운영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함께 했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지역의 어른들이 뒷받침해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1989년 10월, 사표를 내고 농촌으로 들어와 시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농간의 격차는 지금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재임용 후에도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전전하며 기울어진 저울추의 영점을 맞추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일합니다. 제 이웃과 제가 느끼는 결핍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려고요.

14년간 '신나는 토요일학교'를 꾸려오신 것도 그 이유인가요.

2006년, 주 5일제 근무가 확산하며 학교에서도 월 2회 주 5일제 수업을 도입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놓고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모양새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제가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제 아이를 시골 초등학교에 보내는 어머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육환경을 생각한다면 농어촌지역 아이들은 토요일에 방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함께 <농촌교육사랑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듬해 3월부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신나는 토요일학교>를 열 수 있었죠.

<어르신 한글교실>도 함께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농촌교육사랑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어르신 한글교실>입니다. 2007년 1월, 26분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시작한 한글교실이 올해로 꼭 14년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도 들립니다. "선생님, 우리는 졸업도 안 했어요?" "돌아가시는 날이 곧 졸업 날"이라 했던 농담이 어느새 약속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농어촌희망재단의 지원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으며 노래교실, 체조교실, 서예교실, 요가교실, 공예교실, 요리교실이 생겨났습니다. <왕궁어르신대학>의 시작이죠. 그러나 작년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년 만에 문을 닫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리학자 에미 위너의 <카우아이 연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955년 카우아이섬에서 출생한 833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가정환경과 경제적 여건, 사회적 환경이 한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한 것입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했던 고위험군 201명을 대상으로 성장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분의 2가 높은 수준의 부적응, 학습장애,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반면 3분의 1은 출생 배경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학교 적응은 물론 사회 적응 능력도 뛰어났고,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리더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배경을 조사한 결과, 이들 72명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죠.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켜주는 '오직 한 사람'. 선생님들이 누군가에게 그 '오직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학교현장 탐방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천안신당고등학교



문경아
천안신당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천안신당고등학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신당고등학교 국어 교사 문경아입니다. 현재 인문예술융합부에서 인문·교육융합 교과특성화학교 운영과 독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개교한 천안신당고등학교는 혁신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재지정교이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이며, 아울러 인문·교육융합 교과특성화 학교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충남 교육청의 학교 공간 혁신사업에도 선정되어 학생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 친화적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명상 숲 또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안신당고등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공간까지도 혁신함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천안신당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교의 교육목표는 교사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교육비전은 '서로 믿고 아껴주는 행복한 학교'이며, 교육지표는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배움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교육목표는 '자기주도학습력과 핵심역량을 지닌 창의인재 육성',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 육성', '심신이 튼튼하고 예술적 감성을 지닌 건강인 육성'입니다. 2020년 교사들의 참여로 결정된 교육의 방향은 그 연속성을 위해 2021년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전 교사가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특색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과학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다양한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 인문소양교육 등이 한데 어우러

져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와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여 개가 넘는 선택과목은 물론, 공동교육과정으로 소인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 및 수강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교육융합 교과특성화학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문·교육융합 교과특성화학교는 본래 인문·교육융합중점과정이란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중점'이라는 용어보다 '특성화'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보다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교과특성화학교는 '특정 진로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관련 교과와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3년간 자율편성 단위의 30%(26단위) 이상을 교과특성화 교육과정 관련 과목으로 개설·운영하고, 동아리·봉사·진로·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또한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문·교육융합 교과특성화학교는 인문이나 교육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인문계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문계열 학생들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말미암아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자신들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를 꿈꾸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으나 그들을 위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교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인문·교육융합 교과특성화학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인문이나 교육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동아리 활동 지원, 관련 교과 수업활동 지원, 다양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동교육 방법' 등의 전문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였고, 교육봉사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2019년에는 동아리 학생들이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문 교과 수업 혁신의 일환으로 교과연계 독서교육과 토론교육을 활성화하고, '사제동행독서멘토링', '책쓰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인문



학 독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문학 독서토론캠프'와 '토요인문학교실'은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독서토론캠프를 통해 '호모 데우스' 같이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고 능동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였고, 토요인문학교실을 통해 10권의 동서양 고전을 읽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본교가 균형 잡힌 교육 기관으로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인문·교육융합 교과특성화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문이나 교육 분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문학 독서토론캠프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그동안 과학계열 프로그램보다 인문사회계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와중 선생님이 인문학 교실, 독서토론캠프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준 것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인문사회계열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이공계열 학생뿐만 아니라 문과 학생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말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문적 가치를 살리고 확산시킬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조차 인문학의 가치를 외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인간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학생들의 의식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많은 학생들이 오로지 돈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이자 꿈으로 여기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문이나 교육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인문적 소양을 키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특히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인문·교육융합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 여건상 저 혼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한 점도 많아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들이 어우러져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기에 이러한 아쉬움도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립학교 교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에는 비로소 공교육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저에게 학생들의 교육을 맡긴 것이기에 그 책임은 정말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된 것이지요. 학교가 길러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이 나라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떠올리니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교육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외면한 채 직장인으로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교육을 꿈꾸며 교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교사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교사의 길은 평생을 바쳐 걸어갈 만한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멋진 길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그동안 교육현장에서조차
인문학의 가치를 외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인간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문이나 교육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인문적 소양을 키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탐방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서울의 여러 이색 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를 그대로 담아낸 '서울교육박물관', 우리 민족의 전통 민요를 소개하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펼쳐내고 있는 '서울생활사박물관'. 각 박물관이 서로 다른 분야를 주제로 하는 만큼 관람 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요. 서적을 통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직접 발로 뛰고 체험함으로써 지식의 지평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색 박물관을 관람하며 다함께 떠나볼까요?

〈서울교육박물관〉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정독도서관
- 관람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
(매월 1, 3번째 수요일 정기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2011-5782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6
- 관람시간: 화~금, 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 오전 9시~오후 7시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742-2600

〈서울생활사박물관〉

- 전시장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 관람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주말 오전 9시~오후 7시(3월~10월)
오전 9시~오후 6시(11월~2월)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3399-2900

박물관으로 떠나는 여행, 〈서울 이색 박물관〉

박물관(博物館)은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회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각 분야의 박물관은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일까. 봄가를 즈음이 되면 견학하러 온 학생들로 박물관 내부가 시끌벅적하다. 물론, 성인에게도 박물관 견학은 유익하고 의미있는 체험이 될 수 있다.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박물관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 박물관과의 물리적 거리는 비교적 가까울지언정 심리적 거리는 꽤나 먼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박물관과의 심리적 거리도 좁혀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교육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을 둘러보며 박물관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어 가 보자.

I 서울교육박물관



정독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교육박물관은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는 교육 전문 박물관이다. 전통기(삼국~조선시대), 개화기, 민족저항기, 광복과 6.25 전란기, 교육과정기의 교육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동회, 소풍과 같은 학교 행사에 관한 자료는 물론, 당시 사용되었던 문구 용품과 과거 학교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 내용 가운데 인상 깊었던 '국어상용(國語常用) 카드제도'와 '무릅사건'을 소개해 보겠다. 1938년 조선어 수업이 폐지되고,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는 시기에 이르자 국어상용 카드라는 것이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담임 선생님이 몇몇 학생에게 '국어상용'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나누어 주면, 카드를 받은 학생은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에 우리말을 하는 사람에게 국어상용 카드를 전달하게 된다. 카드를 전달받은 학생들은 방과 후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카드를 다른 학생에게 넘기기 위해 어떠한 편법도 불사하였다고 한다.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릇된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말 탄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유롭게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게 된다.

무릅사건은 1964년 12월 7일 서울시 중학교 전기 입학고사 문제 중, 자연과 18번 문제의 정답이 '디아스타제'뿐만 아니라 '무릅'도 될 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서울시 공동출제 위원회는 정답을 '디아스타제'라고 발표하였으나, '무릅'을 답으로 작성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무릅에도 디아스타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당시에는 중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을 치르고 중학교에 진학하였는데,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때의 중학교 입시는 현재의 대학 입시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과열된 대한민국의 교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중학교 무시험 전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이 시행되었다. 위의 물건은 그 시절 사용되던 무시험 추천기의 모습이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 입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자, 예비 교육자인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 되돌아보게 된다.

I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국내의 첫 민요 전문 박물관이다. 전국 곳곳의 2만여 명을 만나 담아낸 '전국의 소리'가 모두 이곳에 집약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불렀다. 여럿이 함께 일할 때, 의례를 치를 때, 즐



겁게 놀 때는 물론, 슬픔을 견디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노래를 불렀다. 아픔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도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인상 깊다. 말로는 이루 표현하기 힘든 마음속 아픔을 노래를 통해 승화·극복하려 했던 우리 선조의 예술성과 지혜가 돋보인다. 이처럼 민요에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삶이 담겨 있다. 민요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우리소리박물관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의 소리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설전시장은 크게 '일과 우리소리', '놀이와 우리소리', '의례와 위로의 우리소리', '우리소리의 계승'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각 주제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민요를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서랍을 열면 민요가 흘러나오는 방식, 벽 또는 스크린을 터치하면 민요가 흘러나오는 방식 등 민요를 감상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구현되어 있어 한층 더 흥미롭다. 집안일을 하며 부르는 노래에서부터 어린이들의 노래, 민족의 노래 아리랑, 망자의 명복을 비는 장례 노래,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서사 민요까지 여러 소리를 감상하다 보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향토민요는 1950년대 이후 점차 소멸되어, 오늘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소리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우리 민요를 보존 및 전승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루 정도는 우리소리박물관에 들러보자. 전통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I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과거 서울북부지방방비원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있던 북부법조단지였다. 2010년 북부법조단지 이전에 따라 유휴지가 되었던 해당 부지는 2019년,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서울생활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하였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크게 본관동, 별관동, 구치감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관동에서 생활사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본관동은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층은 생활사 전시실, 4층은 기획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문화탐방에서 초점을 두었던 곳은 본관동 1~3층에 해당하는 생활사 전시실이며, 전시실의 각 층은 '서울풍경(1층)', '서울살이(2층)', '서울의 꿈(3층)'이라는 주제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풍경'에는 주로 서울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끊임없이 발전해 온 서울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과거 서울 도로를 누비며 다녔던 자동차도 직접 관찰할 수 있는데 말로만 듣던 '포니원 택시'를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던 무선호출기, 일명 '빠빠'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살이'에는 서울 시민의 성장, 결혼,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고도 성장기 동안 지방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 1980년대부터 서울의 터줏대감인 '서울토박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결혼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전시가 이어지는데 시대별 혼수품과 답례품의 변천사가 눈길을 끌며, 출산과 관련하여 우량아 선별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서울의 꿈'에는 주택, 교육, 상업에 관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다. 주택의 변천사, 과거 학급의 모습, 사라진 직업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아궁이, 풍로 등의 생활용품은 비롯하여 당시 아동들이 소지했던 학용품과 다양한 놀이거리, 버스 안내원의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 위치한 이색 박물관 세 곳을 둘러보았다. 지면에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많은 박물관들이 서울 곳곳에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듯, 백 번 듣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편이 보다 좋다.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가 발로 뛰며 체험해 보자. 박물관에서의 사색은 다양한 분야의 견문을 넓힐 뿐 아니라,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 뜻깊은 휴식이 될 것이다.

